

SPRING 2018 Vol. 82

또 하나의 나, 우리





‘또 하나의 나, 우리’는 플랜코리아가 전하는 아이들의 소중한 꿈입니다.

플랜은 UN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 기구로 80년 역사를 가지고
국제적 신뢰를 인정받아온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종교·정치·국적을 초월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1억6천5백만 명의 어린이와 가족 및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보호, 교육, 보건의료, 식수 및 위생, 생계지원, 긴급구호 등의 영역에서
종합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플랜코리아는 플랜인터내셔널의 한국 지부입니다.

또 하나의 나, 우리 SPRING 2018 Vol. 8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H스퀘어 S동 912호 이메일. kno@plankorea.or.kr 홈페이지. www.plankorea.or.kr
통권. 제82호 발행일. 2018. 3. 23 발행인. 이상주 발행처. 재단법인 플랜 한국위원회 디자인. 그래픽오션 02.3422.5612
편집. 서울커뮤니케이션 070.7633.2009



CONTENTS

04

Plan Report
Girls' Rights are Human Rights

08

우리는 플랜가족
세상을 향한 나눔의 향해

10

사랑은 계속됩니다
지훈이와 가족에게 아름다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2

사랑은 계속됩니다
따뜻한 겨울을 선물 받은 아이들과
새로운 봄날을 맞이합니다

14

사랑은 계속됩니다
함께 만들고! 먹고! 나누고!
맛있고 건강한 나눔을 실천합니다

16

지구촌을 간다
사랑을 나누러 갔다가
뜨겁게 채우고 왔습니다

18

Campaign
할례를 근절하는 7가지 방법

20

특집
플랜코리아 앱 런칭

22

꿈꾸는 에세이

24

고마워요 플랜

28

꿈꾸는 아동편지

30

플랜톡

32

Plan Board

33

플랜툰

34

후원자 공간

35

Enjoy Plan

36

플랜 소식

GIRLS' RIGHTS ARE HUMAN RIGHTS

전 세계적으로 소녀들은 지속적으로
폭력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제법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소녀들에 대해 언급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어떠한 자료들을 찾아보아도,
소녀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소외된 집단이라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가난, 민족성, 장애라는 요소까지 더해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다음 숫자로 확인해 보면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200만 명의 소녀들이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매일 41,000명의 소녀들이 강제로 결혼을 합니다.
이는 첼시 축구 구단 경기장을 매일같이 어린 신부들로 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GIRLS' RIGHTS PLATFORM

이러한 쟁점들을 더욱 이해시키고 국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플랜은 '여아 권리 플랫폼(Girls' Rights Platform)'을 오픈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베이스로 종합적이고 검색 가능한
1,300건이 넘는 국제 정책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소녀와 관련된 법률의
간격을 좁혀줍니다. 소녀를 위한 Google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녀들의 인권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 중요한 쟁점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의 오픈과 더불어 플랜은 국제법 내 소녀들의 현황에 대한 심층 연구 보고서인
'여아의 권리가 인권입니다(The Girls' Rights are Human Rights)'을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 역시 1930년부터 2017년까지 여아와 여아인권과 관련된 1,300여개의
국제 정책 문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 체계 안에서 소녀들이 차별 받지 않고
적절하게 보호 받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소녀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제시합니다.



여아의 권리가 인권이 되기 위해



성 차별 없이 동등하게 존중합니다

세상 모든 아이들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여자아이들이 신체적인 차이와 성별로 인해 남자
아이들보다 부당한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소년과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중립적인 언어와 표현으로
인해 차별이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사용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안이 필요합니다

국제법에서 보다 분명하게 여자아이들의 인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성과 아동의 범주에서 소녀의 인권을
따로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차별화된 보호를 통해
여자아이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소녀들의
인권을 널리 알리면서 지속적으로 법안을 수정하고
보완해나갑니다.



소녀들과의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냅니다

여자아이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그들의 현실을 국제
기준에 반영해야 합니다. 국제 사회는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의 협조를 통해 소녀들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당사자임을 강조하고,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를 촉구합니다

각 정부는 국제 기준을 따르면서 소녀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여자아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차별이 인권 보호
정책과 법안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데이터들을
수집하며 접근해나가야 합니다.

소녀, 세상으로 나가다



배우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을 배웁니다.

이끌다: 삶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직접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결정하다: 스스로 신체를 통제하고 자신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선택합니다.

성장하다: 차별과 두려움, 폭력으로부터 동등하게 보호받습니다.

이제는 소녀들의 성장을 억압하고

방해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지구촌의 중심으로 소녀들을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전에는 한번도 해보지 않았던 방법으로,

소녀들의 구체적인 권리와 필요를 확인하고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아의 권리가 인권입니다.

**GIRLS' RIGHTS
ARE HUMAN RIGHTS**

세상을 향한 나눔의 향해

안창수 후원자

“해야 할 일이 생기니까
삶이 즐겁네요. 그게 행복이죠.
이런 기운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40여 년간 외항선 선장과 도선사로 일하며 세계 곳곳을 다녔던 그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이 마음 한 구석에
늘 밝혔다고 한다. 언젠가 꼭 보탬이 되어주리라는 마음으로
긴 세월을 걸쳐 꾸준히 저축을 했고, 지난해 플랜코리아에 오랫동안
모아온 돈을 기부하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세상을 향한
그의 향해는 이제 나눔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출발을 앞두고 있다.

플랜 어떻게 나눔을 결심하고 오랜 시간 기
부를 준비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후원자 오랫동안 외항선을 타면서 죽을 고
비를 넘긴 어느 바다, 또 아름다운 추억이 남
아있는 어느 항구, 제가 누빈 모든 곳들에 사
연이 있지만 아프리카가 유독 기억에 남았
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끌림을
느꼈거든요. 아마도 동질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제가 찾았던 기니나 에리트리
아는 한국의 상황과 매우 비슷했어요. 그래
서 그때 조금은 유치하지만 '훗날 퇴직을 하
고 '007 가방'에 100불짜리를 넣어 다시 한
번 와야지. 이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야지' 하
는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
이 되었고, 여러 방법을 알아보다가 플랜코
리아를 알게 되어 뜻 깊은 순간을 이루게 되
었습니다. 올 여름에는 아프리카 기니 지역
아이들을 직접 만나러 갈 생각이예요.

플랜 20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며 흔들림
없이 뜻을 이어오기까지 쉽지만은 않으셨
을 것 같습니다.

후원자 배를 타다 보면 사람이 부족해 추
가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모
두가 힘들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저
는 빠짐없이 했습니다. 떳떳하게 돈을 벌었
고 가족에게 필요한 금액 외에 기부금으로
저축할 돈을 매달 조금씩 떼어 차곡차곡 20
년 동안 계속 모았죠. 평생 배를 모는 것 말
고는 따로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선상 생
활을 할 때에도 선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해서 술을 마시거나 돈을 허투루 쓰는 일도
전혀 하지 않았고요. 돈을 잘 쓸 줄도 몰라

서 양말 하나도 모두 아내가 사줬어요. 돈이
라는 게 제 손에 있으면 거추장스럽고 그렇
더라고요.

플랜 멋지고 훌륭한 선택이었던 만큼 주
위에서도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줬을 듯
합니다.

후원자 그 전까지는 제 속으로만 생각하고
누구에게 이런 계획을 이야기 한 적이 없었
어요. 그러다 우연히 '부산일보'에 기사가 났
는데 소문이 금세 퍼졌더라고요. 아내도, 친
구들도 그렇게 알게 됐어요. 아내는 그간 말
을 안 한 것이 서운했다고 했고, 딸은 '아버
지 멋지다'고 했어요. 열 살 아래의 동생도
'형님 대단하다고' 했죠. 반대로 쓴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게 고
맙다는 말 한 마디 듣지 못할 텐데 왜 그런
일을 하나고요. 쓸데없는 행동이라고요. 하
지만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니까요.
돈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저는
저의 행동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플랜 후원자님께서 생각하는 '나눔'은 무
엇인가요?

후원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대한 생
각 자체를 잘 못합니다. 다들 먹고 사는 일이
바쁘고 힘들기도 하고, 어찌 보면 관심 너머
의 일이니깐요. 그러나 저는 나눔의 마음은
돌고 돌아 결국엔 필요한 곳에 간다고 생각
합니다. 제 나이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
만, 그 당시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 역시 사정이 좋지 않았는데 여
기저기 도움을 받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대

학까지 나올 수 있었어요. 제가 대학에 다니
던 시절만 해도 우리나라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아서 외국의 도움도 많이 받았잖아요. 이
제야 마음의 빔을 갇게 된 것 같아요. 이만하
면 잘 산 거죠?(웃음)

플랜 누군가를 돕는 일이 아직은 낯설고
어색하신 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앞으
로의 계획도요.

후원자 세상일이란 게 힘들다고 하면 한없
이 힘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또 좋은
일이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2년 전 퇴직하
고 난 뒤 시골에 내려가 염소와 닭을 키우면
서 살아가고 있어요. 처음엔 하던 일을 그만
두고 나니 마치 제가 죽은 사람인 것 같은 느
낌이 들더군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육
체만 살아있다고 그게 산목숨일까요? 저는
생각 없이 사는 것은 온전한 삶이 아니라고
봅니다. 문득 내 인생에 뜻 깊은 일을 하나
쯤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가 그 때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나면 어
떨까, 그렇게 인연을 이어가면서 2,3년에 한
번씩 찾아가보면 어떨까 하는 결심을 했습
니다. 물론 건강이 허락해야겠지만 말입니
다. 해야 할 일이 생기니 삶이 즐겁네요. 누
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제가 즐거우면 그
게 행복이죠. 이런 기운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훈이와 가족에게 아름다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66

지훈이 몸무게가
6kg나 늘었어요

99



필리핀에서 온 어머니가 서툰 한국말로 제일 먼저 한 말입니다.
플랜코리아의 위기아동지원캠페인을 통해 소개된
뇌병변장애 1급 '지훈이(5세/가명)'를 기억하시나요?
병원비를 위해 아픈 아이를 홀로 두고 공사장으로 출근해야만 했던
지훈이네 가족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섯 살의 나이에 9kg밖에 안되었던 지훈이의 체중이
지난 6개월만에 15kg까지 늘어나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소화능력이 좋아져서 이유식도 시작했습니다.
가장 반가운 것은 편안해진 지훈이의 숨소리입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으로 가정용 석션기를 구입해
입원 횟수가 줄었고, 그동안 포기했던 검사를 진행하면서
지훈이에게 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훈이 누나는 인근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방과 후
보호와 교육프로그램을 지원받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혼자 집을 지키는 딸에 대한 부모님의 걱정까지 줄었습니다.
지훈이의 할머니께서는 새벽마다 공사장으로 출근해야 하는
엄마와 아빠를 대신해 낮에 지훈이를 돌봐주시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지훈이 부모님은 마음 편히 일을 하며
치료비로 쌓여가던 많은 빚을 해결했습니다.
머지않아 의료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선정되면
앞으로 지훈이의 의료비도 많이 줄어들 예정이라는
기쁜 소식도 생겼습니다.



지훈이와 가족, 이렇게 함께 도왔습니다

- ♥ 플랜코리아의 긴급의료비지원을 위한 캠페인 진행
- ♥ 행정기관(주민센터와 구청)을 통한 의료비 정부 지원 신청
- ♥ 인천시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조로 가족 상담, 지역 자원(병원, 행정기관 등) 연계
- ♥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지훈이 누나의 방과 후 보호 및 기초 학습 프로그램 지원

공사장에서 퇴근한 아버지의 거친 손이,
작고 고운 지훈이의 손을 잡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픈 아이를 보듬고 키워내야 하는
부모님의 고달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다”는 아버지는 지훈이에게
사랑과 희망을 선물해주신 후원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내며 뜨겁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플랜코리아는 지훈이 가족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더욱 안정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플랜코리아는 국내 아동을 지원하며
조금 더 가까이에서 우리의 사랑을 전합니다.
위기에 처한 아이와 가족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달하고
그들이 새로운 변화 속에서 씩씩하게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따뜻한 겨울을 선물 받은 아이들과 새로운 봄날을 맞이합니다



선물 하나, 꿈이 현실로 이뤄진 놀이공원 나들이

놀이공원에 가는 것이 먼 꿈처럼 느껴지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왕복 8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이용권과 교통비 등의 예산 부족으로 매년 포기해야만 했지요. 그래서 플랜코리아가 나섰습니다. 에버랜드와 함께 경북 영천시의 '큰사랑 지역아동센터' 아동 50명을 초대해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에버랜드를 찾은 아이들은 찬 바람 속에서도 루돌프 머리띠를 하고 성탄트리 점등식에 참여했고, 어느 때보다 밝고 환한 표정들로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 설치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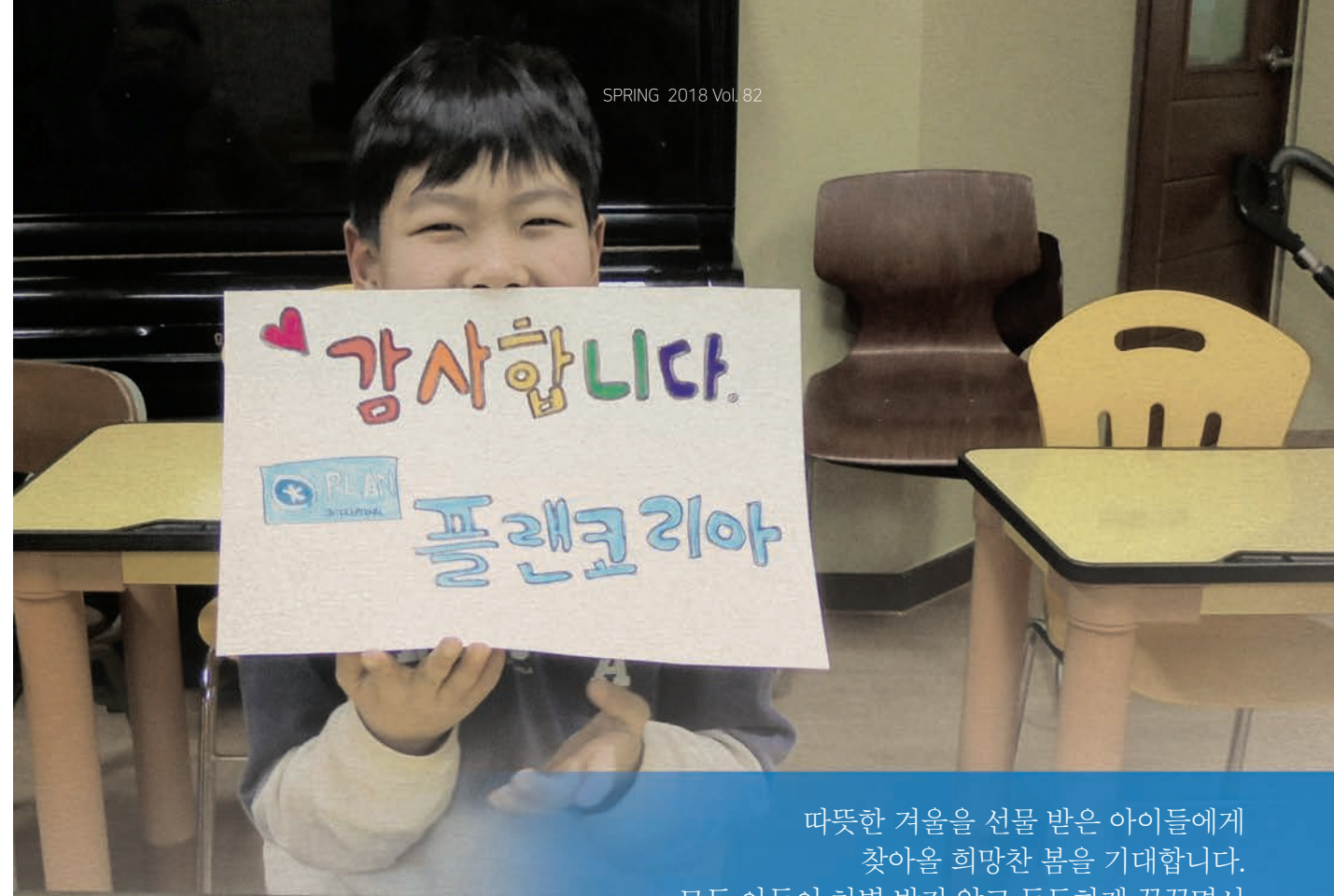


▲ 설치 후



선물 둘, 더욱 안전하게 따뜻한 환경에서 공부해요

놀이공원에서 잊지 못할 하루를 선물 받은 아이들은 그 날 이후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버랜드의 후원으로 아동센터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해 노후한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여 따뜻한 실내 분위기를 만들고, 눈썹이가 맞지 않아 차가운 바닥에 앉아 공부해야 했던 아이들에게 성장 발달에 맞는 책걸상을 선물하였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바른 자세를 통해 학습 태도를 향상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면서 건강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을 선물 받은 아이들에게
찾아올 희망찬 봄을 기대합니다.
모든 아동이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하게 꿈꾸면서
자신의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66

우리에게 도착한 고마운 마음

“안녕하세요! 에버랜드에 다녀온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날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또 가고 싶다’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래된 장판과 낡은 벽지를 보면서 늘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큰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책걸상이 생긴 이후로 아이들의 학습 태도가 달라지고 집중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건강한 아동으로 자랄 수 있게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 큰사랑 지역아동센터 담당교사 -

99

함께 만들고! 먹고! 나누고! 맛있고 건강한 나눔을 실천합니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더 소외되고 쓸쓸해지는 이웃들이 있지요. 그들을 위해 플랜코리아 임직원 및 봉사자들이 모여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숲과 나무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함께 설맞이 명절음식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명절 음식을 같이 만들고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께 전달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아이들 스스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서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키우고, 나누는 소중함과 즐거움까지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독거 어르신에 집에 들러 제가 만든 전과 떡을 나눠드리고, 함께 이야기를 더 나누다가 나왔어요. 처음 해본 요리이고 나눔 봉사였는데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서 좋아요.”

-이희진

“우리가 직접 전을 만들어 먹으니깐 꿀맛이었어요.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거든요. 할머니께서 맛있게 먹겠다고 해주셔서 좋았고, 플랜코리아 선생님들과 나눠 먹으니깐 더 맛있었어요.”

-김미연

“어르신들께서 처음 본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웃어주신 덕분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음식을 잘 전달할 수 있었어요. 날씨가 추웠지만 함께 전을 부치고 나누어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황보람

“그 동안 명절에는 쉬기만 했는데 직접 음식 재료를 일일이 자르고, 간도 맞추고, 계란 물도 묻히며 요리를 하게 되어서 새롭고 신기하면서도 재미있었어요. 170개의 전을 부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같이 도우면서 하니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혼자 사는 할머니께 직접 갖다 드려서 뿌듯했어요.”

-정환희



**몸도 마음도 튼튼해지는
밥상을 지원합니다.**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한끼 식사는 몸과 마음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학이 되면 급식마저도 끊기고, 부모님들은 일터에 나가거나 몸이 아파서 아이들의 끼니를 챙겨 주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플랜코리아는 급식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아이들이 밥을 굶지 않도록 따뜻하고 든든한 밥상을 전달합니다.



건강한 밥상

편의점 인스턴트 음식 대신
영양 있는 건강한 밥상을 지원합니다.



행복한 밥상

집에서 혼자 먹는 밥 대신 친구들과
함께 먹는 행복한 밥상을 지원합니다.



안전한 밥상

아동센터의 조리사가 직접 조리해 주는
안전한 밥상을 지원합니다.



사랑을 나누러 갔다가 뜨겁게 채우고 왔습니다

2017년 2월부터 1년 간 플랜부르키나파소에 파견되어 사업 관리자로 지냈습니다.
플랜코리아에 근무하며 여러 개발도상국을 출장 차 방문했지만 아프리카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귀국을 준비하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깊은 아쉬움이 남지만,
또 다른 기회와 만남이 기다리고 있으리라 믿어봅니다.



글/사진. 참가회 플랜코리아 대외협력팀

부르키나파소에 찾아온 변화

플랜코리아와 플랜부르키나파소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지원을 바탕으로 HIV모자수직감염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 활동 중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배우자 학교' 운영이에요. HIV 모자수직감염예방을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임신을 준비하고 산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이곳은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해 산전관리가 여성들의 일로만 여겨지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플랜에서는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을 남성들로 구성된 배우자 학교를 운영하며 가정 내 남성의 긍정적인 역할과 HIV 감염예방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에 대해 안내했어요. 대부분 그냥 형식적으로만 참여하는 건 아닐지 걱정했지만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마을 주민들이 건강하게 개선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남성들은 큰 자부심까지 가졌어요. 마을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자발적으로 평가해보는 등 지속적인 활동도 이어갔죠.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그들의 모습은, 현지에 적응하고 여러 업무를 습득하느라 살짝 지쳐있던 저에게도 다시 힘을 내는 좋은 계기가 됐답니다.

잊지 못할 미용실 추억

미용실에서 유쾌한 경험도 했어요. 부르키나파소 사람들이 하는 헤어스타일을 저도 해보고 싶어서 이웃사촌인 조르젯과 함께 그녀가 자주 다니는 미용실로 향했죠. 가깝다고 하더니, 15분 넘게 걸어야 했어요. 참고로 사하라 사막 아래에 위치한 부르키나파소는 가장 더운 4월에는 42도까지 오르고 평균 기온이 36도 가량 됩니다. 땀으로 범벅 된 채 미용실에 도착하니 한 여성이 변신 중이었어요. 머리카락 한 줄로 머리를 빙 둘러가며 땀고, 바늘과 실을 이

용해 그 줄을 따라 가발을 꿰매는 모습을 보는데 무척 신기하더군요. 제 차례가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부르키나파소 사람들처럼 머리를 해달라고 했지만 제 머리카락은 미끄러워서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머리를 그냥 땀았죠. 비록 현지 스타일을 연출 할 수는 없었지만 신나게 수다를 떨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뜨거운 날씨, 뜨거운 사람들

저의 유일한 재산인 자전거는 없어서는 안 될 보물 1호였죠. 그 날도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자전거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높은 기온 탓에 밖에 세워둔 자전거 바퀴 바람이 모두 빠져버린거예요. 자전거 가게까지는 약 500m나 남아있던 터라 난감했는데, 마침 그 때 길 건너편에서 빈 삼륜차가 지나갔어요. '나를 태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던 찰나 제 간절한 목소리가 들린 것일까요? 비록 매끄러운 의사소통은 힘들었지만 덕분에 저는 무사히 자전거를 들고 이동하여 바퀴를 고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보니 매일 출근길에 자전거 뒤 비뚤게 매달린 제 가방이 곧 떨어질 것 같다며 알려주던 사람들이 생각나네요. 바쁘게 살며 상대에게 무관심한 채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 이곳 사람들은 이웃을 보듬는 따뜻한 관심과 친절을 새삼 알려줬습니다.

언제 또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머지않아 그 날이 다시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세계 여성 할례 철폐의 날

할례를 근절하는 7가지 방법

Let#ENDFGM

할례는 여자들에게만 반복되는 슬프고 무서운 폭력이자, 반드시 끊어져야만 하는 악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 약 30개 국가에서 2억 명이 넘는 어린 소녀와 여성들이 할례로 고통 받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여성인구의 90% 이상이 이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할례를 멈추기 위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서고 있는 말리, 그 곳에서 지금 세상을 바꾸기 위한 변화의 불씨가 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리를 변화시킨 7가지 노력

말리에서는 14세 이하 여아의 76%, 15-49세 여성의 83%가 할례를 받았지만 이 추세는 점점 감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할례는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플랜은 말리에서 할례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차별에 맞서 도전합니다

“할례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아무도 우리 말을 듣지 않더라도 계속 대화해나가야 해요. 뿌리 깊이 자리잡은 잘못된 관습은 모두의 인내와 노력을 통해서만 바뀔 수 있으니까요.” - 아밀라, 70세

종교적인 이유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지지자들은 할례를 통해 소녀들이 순수해진다고 믿어요. 하지만 제 딸은 할례를 받다가 죽었어요. 종교와 악습은 엄연히 달라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해요.” - 나가, 48세

기성세대와 함께 잘못된 전통을 바꾸기 위해 노력합니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에는 다양한 삶의 교훈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성교육이 이뤄지면서 좋은 가르침들을 배울 수 있었죠.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여자로서의 권리를 알려줘야 해요.” - 마, 65세

법안으로 완벽하게 금지합니다

“할례를 완벽하게 근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안을 만들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의회, 마을, 공동체 모두의 강력한 지지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 다나투, 마을 교육가

스스로 신체를 지킬 수 있게 교육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교육 받으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할례를 원치 않는 아이들도 점점 더 늘고 있고요. 저는 결코 제 딸이 이 고통을 겪지 않게 할거예요.” - 사바나, 24세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주시합니다

“예전에는 마을 공동체가 모두 할례에 참여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공식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할례를 받았다는 안 좋은 소문이 돌까봐 조심하지요.” - 로키아, 92세

위험성에 대해 다같이 대화합니다

“저와 남편은 딸의 할례를 원치 않아요. 할례 받는 소녀들의 끔찍한 사진과 영상을 봤기 때문이죠. 할례가 얼마나 위험한지 TV와 라디오로 자주 보고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 코로토모우, 30세

할례는 소녀와 여성들의 신체에 대한 권리, 스스로 선택 할 수 있는 자유, 더 나아가 건강하게 성장하며 교육 받을 권리까지 모두 침해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더 이상 미래를 잃고 희생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플랜코리아 APP 런칭

플랜코리아 앱으로 **스마트한 나눔**을 실천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플랜코리아와 함께!”



플랜코리아 앱이 출시 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더욱 쉽고 간편하게 플랜코리아의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플랜코리아의 앱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1. 후원아동 자료 보기

후원신청을 하면
후원아동 소개서가 앱으로 쏘옥!
아동성장 보고서가 업데이트되면
우편보다 먼저 앱에 보고서가
도착합니다.



2. 실시간 소식 받아보기

플랜코리아에서 진행하는 행사와
캠페인, 후원자 이벤트 등의 즐겁고
유익한 소식들을 푸쉬 알림 기능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요.
후원자 모임과 The좋은여행 참여
신청도 감박하고 놓치는 일 없이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3. 간편하게 후원하기

앱에 로그인하면
몇 가지의 터치 과정만으로도
후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누구에게든지
플랜코리아를 소개하고 즉석에서
앱으로 쉽고 간단하게
전 세계 아이들을 위한
아름다운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요.



4. 기부금영수증, 후원확인증 발급

연말정산 시 필수인 기부금영수증과
후원확인증을 복잡한 과정 없이
앱으로 확인하고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후원자 정보 및 결제방법을
변경하거나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앱에서 모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에서 '플랜코리아'를 검색한 뒤 앱을 꼭 설치해주세요!
홈페이지와 소식지로만 접할 수 있었던 플랜코리아, 이제는 모바일로 훨씬 빠르고 가깝게 찾아갑니다.

플랜코리아 앱 출시 EVENT

4월 한달! 플랜코리아 앱에 로그인하면 선물이 쏟아집니다!
4월 한 달 동안 플랜코리아 앱에 로그인하신 분 중
총 10분을 추첨하여 '플랜 코튼 에코백'을 보내드립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5월 중으로 앱을 통해 연락드릴 예정이니
로그인을 계속 유지해주세요!



TALK 카카오톡 @플랜코리아
더 궁금하신 점은 카카오톡에서 '플랜코리아'를 친구 추가한 뒤 문의해주세요.



66

제 이름은 재롤입니다.

99

안녕하세요,
과테말라에 살고 있는 9살 재롤이에요.
5년째 플랜의 후원을 받으면서
즐겁게 공부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플랜에서 우리마을에
학교, 급식실, 보건소를 지어줬어요.
공부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교구들도 주셨고요.
덕분에 저와 친구들은 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지내요.

저는 학교에 다니는 게 참 좋아요.
선생님께서 글을 읽고 쓰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이랑 같이
축구를 하며 놀 수 있거든요.

언젠가 꼭 선생님이 될 거예요.
아이들이 저처럼 글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방법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도 알려주고 싶어요.

저의 후원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재롤의 하루
영상으로 만나기



볼리비아 타리하·치퀴타니아에 퍼진 희망의 씨앗

플랜은 볼리비아 지역에서 오랜 시간 활동해오며 지역 주민들과 아름다운 변화를 일궈왔습니다. 무엇보다도 0-5세 영유아 발달지원, 올바른 양육 교육과 양질의 고등교육, 청년 고용 지원, 자연 재해 대비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면서 어린이와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두 지역은 플랜이 전한 희망의 씨앗들을 스스로 싹 틔우며 더욱 울창한 미래를 준비합니다.



볼리비아 타리하, 치퀴타니아 사업장



“이제 쉽게 물을 구할 수 있고
집은 더 좋아졌어요. 사람들이
예전처럼 아프지 않아서 기뻐요.”
-라미로, 13세



“플랜의 지원 덕분에 지역 사회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플랜은 가장
멀리 떨어진 곳까지 방문해준
유일한 기관이었고, 항상 아이들을
우선으로 활동했습니다.”
-아멜리아, 49세



“플랜과 함께한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폭력 없이 아이를 바르고
건강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리찌, 41세



“플랜에서 받은 교육을 통해 저의
권리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제 미래를 멋지게 계획해나가기
위해서는 공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고요.”
-카르멘 알리시아, 15세



“플랜의 청소년 리더십 코스에
참여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 결과 여행과 관련된 일을 하며
경력을 쌓았고, 지금은 신용조합
에서 일하며 가족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어요.”
-네리다, 28세



“기후 변화로 해마다 피해를 입던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 플랜에 감사합니다.”
-마리아, 공무원



타리하 지역

활동기간:
2000년~2017년

식수·위생

깨끗한 환경에서 살게 됐어요!

- 식수·위생시설 구축 및 개선: [22개](#)
- 주택 개선 혜택을 받은 가정의 수: [약 1,000 가정](#)

아이들과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식수시설을 설치하고, 세면대와 화장실 등의 위생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낙후된 시설로 고통 받는 가족들을 위해 주택의 개선 작업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거주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교육

열심히 배우고 꿈꿀 수 있어요!

- 학교 시설 구축 및 개선: [25개](#)
- 육아 프로그램을 받은 가정의 수: [약 2,000 가정](#)

아이들이 동등하게 교육받으면서 스스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학교를 건축하고 학습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더불어 양질의 교육 및 육아 프로그램들을 진행함으로써 아이들을 비롯한 부모와 가족 모두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올바른 양육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안내했습니다.

보건·영양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요!

- 보건센터 구축 및 개선: [16개](#)
- 사가스병 예방 및 가족 복지 개선을 받은 가정의 수: [약 1,000 가정](#)

*사가스병: '침노린재'라는 빈대와 비슷한 곤충에 물려 감염된다. 주로 중남미에서 발병하는 풍토병의 일종으로, 가옥 내에 살충제를 살포하고 가옥을 개조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 식량 관개시설 및 생산시설 건설: [6개](#)
- 식량 및 영양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 [약 4,800명 이상](#)

-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과 청년: [약 1,500명 이상](#)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게 보건센터를 건설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 교육도 꾸준히 실시하는 한편, 건강한 먹거리와 영양 있는 식단으로 아동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도 지원했습니다.

아동보호 및 권리옹호

위기에 처한 아동들을 지켜내요!

- 폭력 예방과 보호 서비스 사무소: [2개](#)
- 폭력 예방과 보호 프로그램을 받은 가족의 수: [약 7,000 가족](#)
- 리더십과 권리 교육에 참여한 청소년과 청년: [약 2,500명](#)

아이들은 모든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내에서 아동 폭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무소를 마련하고,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 폭력 예방 및 보호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청소년과 청년들은 기본 권리를 지키면서 리더십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치퀴타니아 지역

활동기간:
2000년~2017년

교육

더 많은 아이들이 꿈꾸게 됐어요!

- 새로 건설된 학교와 유치원의 수: [14개](#)
- 학교와 유치원을 이용한 아동의 수: [5,000명](#)
- 조기 육아 교육 혜택을 받은 0-5세 사이의 어린이 수: [소년 약 3,360명, 소년 약 3,314명](#)
- 양육 교육을 받은 어머니의 수: [1,457명, 아버지의 수 약 400명](#)

유치원과 학교 수를 늘려나가면서 더 많은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며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교육으로부터 소외되어있던 5세 이하 영유아 아동들도 보다 나은 환경에서 양육 받고 다양한 교육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보호 및 권리옹호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찾아요!

- 출생증명서를 받은 어린이 수: [13,572명](#)
- 리더십, 권리 교육을 받은 청소년과 청년의 수: [3,860명](#)
- 폭력 및 아동 보호 교육을 받은 아동과 청소년의 수: [2,007명](#)
- 폭력 및 아동 보호 교육을 받은 부모의 수: [872명](#)

아이들이 출생증명서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정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폭력과 학대에 시달리지 않도록, 아동 스스로 권리를 찾고 부모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볼리비아의 타리하, 치퀴타니아 지역은

플랜과 함께 일으킨 변화들을 거름 삼아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뿌리 내린 지속 가능한 꿈을 통해

더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찬 여정을 이어갈 것입니다.

아름다운 변화를 함께 만들어준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며 새로운 희망을 기다리고 있을 또 다른 이들을 위해, 플랜은 멈추지 않고 새로운 변화들을 이뤄나가겠습니다.

고마워요 플랜!



똑똑똑,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필리핀에 사는 '조이스'로부터 도착한 편지를 소개해드릴게요. 후원자님과 조이스는 편지로만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다가 지난해에 직접 만나게 됐었는데요. 후원자님의 방문이 조이스에게 무척 설레고 특별한 추억이 되었나 봅니다!

66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의 동사마르에 사는
조이스 오로스코입니다.
16살이고 책 읽는 것을 좋아해요.

99



조이스의 편지

안녕하세요, 후원자님!
저를 보러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부디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요.

그런데 후원자님께 사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가 수줍음을 많이 타고 조용한 성격이어서
후원자님의 반가운 인사에 미소만 짓고 고개만 끄덕였잖아요.
긴장했었는지 가만히 얼어버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후원자님을 만나서 무척 행복했습니다.
후원자님을 직접 만나게 되다니 설레고 놀라웠고요.
후원자님께서 주신 선물도 정말 감사해요.
이 선물들은 제가 공부하고 살아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요.

그리고 저의 또 다른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날 아파서 함께 만날 수 없어 아쉬웠어요.
저와 제 친구는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는 열렬한 팬이어서
후원자님 같은 분을 만나는 게 꿈이었거든요.

후원자님께서서는 무척 친절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예요.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이스 드림

66

2018년에도 후원자님과 후원아동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편지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후원아동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모든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99



후원자의 답장

조이스, 해피 뉴 이어!
그 동안 잘 지냈니?

우리가 만났었던 날이 가끔씩 생각나고 그리워.
그 날은 나도 무척 긴장되고 설레었던 것 같아.
마을 사람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면서
멋진 공연과 맛있는 음식들을 함께 먹고,
조이스와 가족들, 특히 너의 가장 친한 친구들까지
다같이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뻐한다.

사실 우리가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고민이 많았어.
나도 얼떨떨했는데, 조이스는 더 부끄러웠을 거야.
말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고 있었어.
그러니 그렇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아.

먼 한국에서 항상 널 생각하고
응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줘.
평생 간직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줘서 나도 정말 고마워.
필리핀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면
너의 꿈이 꼭 이뤄지길 응원할게.
아버지와 어머니, 사랑스러운 동생들에게도
모두 안부 전해주렴.

다시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때까지 잘 지내고 또 편지 나누자!



후원아동에게 편지 보내는 방법

- 이메일: letter@plankorea.or.kr
- 우편: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231 H스퀘어 S동 912호 플랜코리아 (우:13494)

* 한글 편지 20일, 영어 편지 25일까지 도착 시 당일 말일 발송합니다. * 편지 선정 시 후원자님께 연락을 드려 공개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 편지가 소개된 후원자님과 후원아동에게는 소정의 The 좋은가게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궁금한 이야기 플랜톡



플랜은 언제나 후원자님과 소통을 기다립니다.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시는 모든 관심이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아동들이 더욱 행복해지는 그 날을 위해
늘 후원자님과 함께 나누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원하게 답변해드릴게요!

Q1. 후원할 때 왜 아동을 선택할 수 없나요?

플랜은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과 아동 보호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플랜 활동의 주요 목표인 동시에 후원자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플랜은 아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위협적인 요소에 노출되거나 또 다른 차별과 학대의 상황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아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활동합니다.

이에 따라, 플랜은 아동의 인권과 삶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조건에 따라 아동을 선택하여 후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결코 상품처럼 나열되어 고를 수 있는 대상이 아닐뿐더러, 특정한 기준으로 평가 받을 수 없고 차별 없이 평등하게 보호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플랜은 아동의 사진, 영상, 정보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한 아이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동 결연은 후원자님께도 무척 소중하고 특별한 인연입니다. 때문에 개인적인 사연을 바탕으로 특정 조건에 맞는 아동으로 결연을 요청하시기도 하며, 기업 후원의 경우 해당 기업체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의 아동 결연을 요청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플랜에서는 국적, 성별, 연령에 한해 후원자님의 요청 사항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후원 신청 시 홈페이지나 신청서에 제시된 후원 기준을 선택 하시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말씀 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결연을 도와 드립니다.

플랜은 가장 도움이 시급한 아동을 우선 결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후원 기준을 선택하여 아동 결연을 신청하시는 경우, 플랜 정책과 요청하신 조건을 고려한 결연을 위해 더욱 꼼꼼하게 아동 자료를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아동 결연과 자료 수령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요청하신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아동으로 결연이 어려운 경우, 가장 근접한 조건의 후원 아동으로의 결연을 개별적으로 안내 드리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Q2. 후원 아동과의 결연이 종료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외 결연 사업은 아동이 성인이 되어 자립 가능한 만 18세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아동의 사정 혹은 지역 사회의 자립으로 인해 후원 아동과 결연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후원자님께 안내 후 도움이 필요한 다른 아동들과의 재결연을 진행하고 있으니 귀한 도움 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연이 종료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졸업

아동이 만 18세가 되어 성인이 되면 플랜 아동 후원 프로그램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러나 후원 아동과 가족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성인을 위한 플랜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철수

아동과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이 개선되어 자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플랜은 그 지역에서 활동을 종료하고 더 어려운 지역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주

아동과 가족들은 더 나은 일자리, 학업, 거주지를 위해 플랜사무소가 없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기도 합니다. 예기치 못한 소식이 아쉽지만 그들에게도 이것은 분명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며 플랜은 아동과 가족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사망

아동들이 사망하는 사유는 예기치 못한 사고, 자연재해, 질병 등입니다. 아동들은 아직 면역력이 낮아 여러 질병에 노출되기 쉽고 현지의 낙후된 의료시설로 인해 플랜과 지역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나눔이라는 소중한
시간과 경험이 모여서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캄보디아로 떠난 첫 해외 봉사에서
귀여운 소녀 릴리를 만났어요.
캄보디아는 물이 부족한데다 중금속에 오염된 경우가 많아
아이들이 수인성 질병에 잘 걸린다고 해서 걱정됐지요.
그래서 저는 릴리와 친구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학교에 식수타워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엔겐 당연하기만 했던 물 한 잔이
그 곳에서는 귀하고 특별한 선물이 될테니까요.

아이들이 건강한 오늘을 살아가고
더욱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플랜코리아의 정기저금으로
작지만 소중한 나눔을 시작해주세요.

플랜코리아 정기저금하기



플랜코리아
정기저금하기

Step 1

네이버에서 '플랜코리아' 검색 후
안재홍 홍보대사의 얼굴을 클릭하여
해피빈으로 이동

Step 2

플랜코리아 정기저금 페이지에서
'저금하기' 클릭하고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

Step 3

정기저금으로
소중한 기부문화에 기여
(일시후원도 가능)

※ 정기저금은 최소 1천 원 이상, 매월 둘째 주 월요일에 자동 결제되며 수수료 없이 100% 플랜코리아에 기부합니다.

Plan Toon

- 1화 -



*《Count Every Child》캠페인은 플랜에서 진행하고 있는 출생등록 캠페인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 약 4천만 명의 아이들이 출생등록을 마칠 수 있었으며, 해당 나라들의 출생 신고 시스템 개선 및 법 개정의 성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플랜코리아는 후원자님과 더 가까이에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 공간은 오직 후원자님들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나의 이야기, 독자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누군가의 사연,
기부와 후원에 앞장서고 있는 개인 사업장 및 기업 소개,
플랜코리아와 소식지에 제안하고 싶은 내용,
그리고 또 다른 무엇이랄도 모두 좋습니다.

후원자님이 만들어가는 페이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 참여 방법 >

정답 및 의견 작성 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 또는
이메일 발송



참여방법 1

카카오톡에서 '플랜코리아'를
친구 추가한 후,
후원자 번호와 함께 사진 전송



참여방법 2

plan_people@plankorea.or.kr
사진 또는 파일 첨부하여
메일 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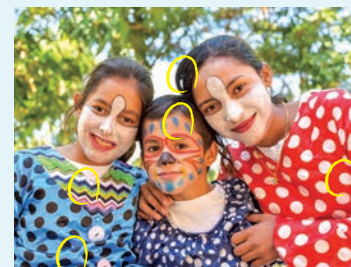
Enjoy Plan

‘또 하나의 나, 우리’를 읽는
또 하나의 재미

틀린그림찾기



- 1 틀린 그림(5개)을 눈에 띄게 표시한 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찰칵!
 - 2 카카오톡에서 '플랜코리아'를 친구 추가한 후,
후원자 번호와 함께 사진 전송!



< 지난 호 정답 >

정답 및 당첨자는 여름호 소식지에 게재됩니다.

2017 겨울호 인조이플랜 당첨자 이현주(인천), 최세봄(대구), 낙연상사(서울), 이효선(안양), 변지원(창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당첨되신 분께는 소정의 The좋은가게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플랜코리아 소식

브리지스톤골프와 함께 골프 특기생에 푸른나래 장학금 지원



플랜코리아가 브리지스톤골프와 함께 저소득 가정의 체육특기생을 위한 푸른나래 장학금을 전달했다. '푸른나래 장학사업'은 학업 및 예체능 분야에 재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꿈을 펼치기 어려운 아동들에게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플랜코리아의 대표적인 국내 사업이다. 브리지스톤골프는 전국 중등학교의 추천을 통해 선발한 골프 분야 장학생 3명에게 총 3,120만 원의 장학금과 더불어 1년 동안 골프 장비를 지속적으로 후원할 것을 약속했다.

재능기부 강연 콘서트 차일드 아동 급식사업 지원금 전달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교육 전문 강사들의 모임인 '차일드'가 콘서트 참가 비용으로 모은 성금을 국내 지역아동센터 급식사업을 위한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차오르는 감동으로 일상을 채우는 드림 콘서트'를 의미하는 차일드는 지난 2016년 열린 첫 콘서트 수익금을 플랜코리아에 지원하며 아름다운 인연을 맺었다. 2화째를 맞이한 이번 콘서트에서는 100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라는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해 나눔과 기부에 대한 훈훈한 열기를 불어넣었다.

김포시에 위기아동지원 후원금 전달



플랜코리아가 '위기아동지원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을 김포아이사랑센터에 전달하고, 김포시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을 돕기 위한 협약을 맺어 앞으로도 꾸준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가기로 합의했다. 후원금은 비닐하우스에 거주 중인 현수(6세/가명) 가족에게 전달돼 현수의 언어치료와 새로운 주거지 구입에 쓰일 예정이다. 플랜코리아는 작년부터 국내 저소득 가정지원, 위기아동 지원 등 다양한 국내 지원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캄보디아 워크숍 성공적 개최



자동차정비기술교육 기관인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캄보디아의 성과를 알리고 공유하는 워크숍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캄보디아 노동기술훈련부와 직업훈련기관을 대상으로 드림센터의 직업교육 모델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 열린 워크숍은 자동차 정비교육과정을 운영하는 32개 기관에서 참여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플랜코리아가 현대자동차, 코이카와 함께 진행해오고 있는 국제협력사업인 현대·코이카 드림센터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경제·산업적 효과까지 이끌어내고 있다.

인천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 협약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내 위기아동과 가정을 돕기 위한 플랜코리아의 노력이 새해에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플랜코리아는 위기아동 지원 캠페인으로 모금한 1,000만 원을 인천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후원금은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지훈이(5세/가명)의 의료비로 쓰일 계획이다. 플랜코리아와 인천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향후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하는 협약식도 열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일성건설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후원 협약식 진행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일성건설이 플랜코리아와 손잡고 본격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나섰다. 일성건설은 임직원의 급여에서 자투리 금액을 모으는 '급여 끝잔데기' 사내 캠페인으로 후원금을 마련하고, 플랜코리아와 함께 지역아동센터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앞으로도 일성건설은 임직원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 나눔 행사와 아이들을 위한 환경개선에 힘쓰면서, '행복공간창조'라는 기업 이념에 부합하는 다방면의 사회공헌 활동들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플랜지구촌 소식

전 세계 지도자들에 아동 교육을 위한 투자 확대 요구



플랜이 2월 1일부터 2일까지 세네갈 다카르에서 열린 '교육 자금 조달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참석해 전 세계 지도자들이 교육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소녀들에게도 소년과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앤-버짓 알브렉센 플랜 대표는 여학생들이 처한 열악한 교육 현실에 대해 설명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에서도 교육 예산을 점차 확대하고 투자를 활발히 함으로써 모든 어린이에게 기본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르완다 난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모바일 시네마



르완다 서부 지역의 키지바 난민 캠프는 17,000명이 넘는 콩고 난민들이 정착하여 새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곳이다. 플랜은 오랜 내전으로 고향을 잃고 떠난 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해나가면서, 희망찬 미래를 향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바일 시네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모바일 시네마는 난민들의 인식개선뿐만 아니라, 영화 상영 후 다양한 오락 활동을 통해 즐겁게 보고 배우면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로힝야족 난민아동의 목소리' 보고서 발간



미얀마 내전으로 로힝야족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플랜과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이 로힝야족 어린이들이 처한 심각한 현실을 공동으로 조사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로힝야족 아동들이 방글라데시로의 탈출과정에서 코끼리와 뱀 등의 야생동물의 위협은 물론 숲 속에서 벌어지는 성폭력과 인신매매 위험에도 노출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 발간을 통해 로힝야족 난민아동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스마트 스쿨로 공부하는 과테말라 소수민족 아이들



과테말라의 소수민족 아이들은 학교에 등록조차 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 플랜은 삼성전자와 함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에게 혁신적인 노마드 스마트스쿨 프로그램을 전개했다. 노마드 스마트스쿨은 휴대하기 편한 작은 기기로 공립학교의 교육 과정을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해준다. 학교에는 32인치 모니터와 태블릿PC, VR 헤드셋, 테이블 등을 전달해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과테말라는 세 번째 노마드 스마트스쿨 프로그램 시행 국가다.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티모르의 청소년 운동가들



티모르의 청소년 단체인 '평화를 위한 청소년 운동'이 티모르 지역 사회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여성과 소녀에 대한 성 범죄와 폭력 근절을 외치며 거리 행진을 펼쳤다. 그들은 여자라는 이유로 수많은 불평등에 노출되어 있는 여자 아이와 소녀들의 인권 보호를 주장하면서 티모르 사회의 성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번 거리 행진에는 70여 명의 청소년 및 청년들이 참여해 더 많은 사람들이 문제 의식을 갖고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짐바브웨 여학생 클럽, 올리히 비커트 아동 권리상 수상



독일의 유명 TV앵커인 올리히 비커트가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의 재능 있는 기자들에게 수여하는 2017년 올리히 비커트 시상식에서 짐바브웨 엠피스 지역 고등학교의 여성권리클럽이 아동권리상을 수상했다. 올리히 비커트 아동권리상은 플랜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로 어린이 단체나 청소년들에게 매년 전달된다. 이번 수상한 짐바브웨 고등학교 여성권리클럽은 14~19세 사이의 여학생들로 구성됐으며,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여성의 권리를 전파하고 있다.

이제 나도 꿈꿀 수 있어요

오빠와 옆집 남자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마다 베트남 소녀 짜오는
늘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아만 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외치는 우렁찬 목소리도,
방과 후 집으로 돌아와 책과 노트를 넘기며 알 수 없는
글자들을 읽어 내려가는 모습도,
하루 종일 두 손이 까매지도록 일만 했던 짜오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멀고 아득하기만 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짜오는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처가 마를 날이 없던 작고 여린 손에는 소중한
특별한 연필 한 자루가 쥐어졌습니다.

짜오의 얼굴에 활짝 피어난 웃음꽃처럼 세상 모든
여자 아이들이 행복하게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The좋은가게



Hot
Item 1

지금 딱 입기에 편안한
플랜로고 후드티셔츠



플랜로고가 새겨진 심플한 남녀공용 후드티!
100%면으로 제작되어 부드럽고,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0,000원



Hot
Item 2

미리 준비하는 새학기
The좋은노트 + 손잡이 지퍼파일 세트



다양한 디자인과 A5크기의
무지 타임으로 필기 및 간단한
아이디어 노트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퍼파일: 많은 양의 파일이나
노트, 책 등을 수납하여
휴대할 수 있습니다.

14,000원

1세트(4ea)+지퍼파일
노트 1권 단독 구매 시, 3,000원

< 지금 더좋은가게에서 만나보세요 >

사랑스러운 후원아동을 위한 선물,
더좋은가게에서 구매해보세요.

더좋은가게 상품 수익금은 플랜인터내셔널을 통해 개발도상국 아동들의
환경개선과 교육 및 보건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지퍼파일



연말연시카드



생일카드



세계지도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후원으로 어린이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원신청서

이름 (한글) (영문) ☐ 남 ☐ 여
연락처 e-mail
주소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상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되며, 회원등록, 소식제공,
연말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동의함

해외아동결연후원 (월 3만원)

저는 명의 아동을 후원하고자 합니다.

희망지역 ☐ 가장 도움이 필요한 지역 ☐ 아시아 ☐ 아프리카 ☐ 중남미

성별 ☐ 가장 도움이 필요한 아동 ☐ 남자어린이 ☐ 여자어린이

서신교류언어 ☐ 한국어 ☐ 영어

특별정기후원 (월 만원)

지원분야 ☐ 해외사업 ☐ 국내사업

후원금결제방법

☐ 은행계좌 자동이체 ☐ 신용카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따로 연락을 드려 세부 내용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19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14세 미만 아동일 경우(아동 개인정보 수집 보호자 동의) ☐ 동의함

관계 법정대리인 (서명)

후원신청서 작성 후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 ID **플랜코리아**로 보내주세요.

후원문의 ☎1544-3222 ✉kno@plankorea.or.kr 🌐www.plankorea.or.kr



지구촌 아이들의 꿈
플랜코리아